

위기를 기회로... 쿠팡, 혁신기업 2위

韓 기업 최초... 美 CNBC 선정 로켓프레시, 올 1분기만 7배 성장 유일한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쿠팡은 미국 경제 전문방송 CNBC가 발표하는 '혁신기업 50'(CNBC Disruptor 50) 중 2위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CNBC는 매년 세계 비상장사 가운데 산업과 시장을 크게 뒤흔든 기업들을 뽑아 '혁신기업 50'으로 발표하고 있다. 트위터, 샤오미, 스페이스X, 스포티파이 등이 지난 7년간 혁신기업 50에 선정된 바 있다. 한국 기업으로는 쿠팡이 처음 선정됐으며 아시아 기업 가운데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CNBC는 쿠팡을 2위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수개월 동안 쿠팡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외출 자제 권고를 받은 한국인들은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주문하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온라인쇼핑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 때 쿠팡은 급증하는 수요를 모두 감당하면서도 기존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주문량이 급격히 상승할 때 쿠팡은 오히려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을 확대했고, 주문 가능한 생필품과 신선식품의 품목수도 오히려 늘렸다"고 말했다.

특히 쿠팡의 당일배송과 새벽배송이 고객들이 사람이 물리는 곳에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왔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로켓프레시' 또한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던 고객에게 큰 도움을 줬다. 로켓프레시는 아이스크림부터 시원한 수박까지 신선식품을 전국 수천만 명의 고객 문 앞까지 단 몇시간 만에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로켓프레시는 올해 1분기에만 전년대비 7배 이상 성장했다.

앞서 쿠팡은 1월 말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판매 가격을 동결한 바 있다. 이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어 쿠팡은 지난달에만 1억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했다. 5000만 국민 모두가 각각 두 장씩 구입한 셈이다. 또 쿠팡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일 전국 100만 가구에 생필품과 식료품을 정확하게 배송하면서 고객들이 외출을 줄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쿠팡이 과감하게 투자해 온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고객 구매와 물류, 배송까지 이어지는 세계 유일의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덕분에 가능했다. 쿠팡은 전국의 물류센터와 국내 최대의 직접배송망을 통해 매년 수억 개의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현대그린푸드 산들내음양파

“현대백서 ‘저탄소 인증’ 양파 맛보세요”

전과정서 온실가스 줄인 농산물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그린푸드가 단체급식에 사용하는 양파를 전량 '저탄소 인증' 양파로 대체한 데 이어, 유통업계에서 처음으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양파 판매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자체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산들내음'이 '저탄소 인증' 받은 양파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인증' 양파를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저탄소 인증'은 친환경(무농약·유기농) 또는 농산물 우수 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가운데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에만 부여된다. 친환경이나 GAP 인증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이 보장된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달 초부터 전국 500여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양파를 전량 '저탄소 인증' 양파로 대체하고 있다. 연간 예상 매입량은 3000여 톤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JW중외제약, 코로나 치료제 개발 '시동'

Wnt 표적항암제 약물 재창출 높은 항바이러스 활성 보여 국내외 임상기관과 협의 진행

JW중외제약이 약물 재창출 전략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JW중외제약은 Wnt 표적항암제 CWP291을 코로나19 치료용 조성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CWP291은 암세포의 성장과 암 줄기세포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Wnt/β-catenin 기전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급성골수성백혈병, 다발골수종, 위암 등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는 혁신신약 후보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CWP291의 기존 표

적항암제 임상연구에서 확인된 종양의 저항성 발현에 주요 역할을 하는 GRP78의 저해효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임상 가능성을 검토했다.

지난 3월 국제학술지 감염저널에 등재된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과 숙주의 수용체 GRP78 결합 부위 예측'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GRP78이 코로나19의 잠재적인 스파이크 결합 부위로 예측됐다.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과 GRP78의 상호작용을 저해시키면 바이러스 진입과 복제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진행된 연구결과, CWP291이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된 '렘데시비르(에볼라치료제)'를 비롯해 말라리아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에이즈치료제 '로피나비르' 등에 비해 약 4배 높은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였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 추가 동물 모델 시험에 돌입하는 동시에 임상시험 착수를 위한 국내외 임상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독성 문제로 여러 항암제의 약물 재창출이 실현되지 못했지만, CWP291은 한국과 미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임상 1상의 약물 용량보다 낮은 농도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CWP291의 약물 재창출 임상시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한림대병원 상처 가려우면 두꺼워지는 원인 발견

김혜원 교수팀, 국제학술지 발표

상처 후 가려움증이 있으면 두꺼운 흉터가 생기는 원인이 밝혀졌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김혜원 교수팀은 'TRPV3작용제(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물질)를 처리한 피부섬유아세포가 TRPV3/TSPL/Smad2/3(가려움 기전 경로)를 통해 피부 섬유증을 유도한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TRP 채널은 뉴런, 피부, 심장, 호흡기관, 신장 등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발현된 이온 채널로서 주로 열감이나 통증을 매개하는 채널로 밝혀져 있는데, 최근에는 가려움증을 전달하는 매개로 알려졌다.



이전 연구에서 김혜원 교수(사진)는 화상을 입고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로부터 TRPV3의 발현 증가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가려움 채널과 수용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 두껍게 생기는 흉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TRPV3의 기능적 역할을 알아봤다.

연구 결과, TRPV3작용제를 처리한 피부섬유아세포가 가려움 기전 채널에서 콜라겐의 발현량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칼슘이온 또한 상당히 유입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HK inno.N, 신약 출시로 美 공략 본격화

HK inno.N(구CJ헬스케어)이 신약 케이캡정의 미국 1상 임상시험을 승인 받고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

케이캡정(사진)은 2019년 국내에 출시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국산 신약 중 최단 시간에 연 매출액 200억 원을 돌파한 대한민국 30호 신약이다. 미국 임상 승인을 시작으로 케이캡정은 국내를 넘어 미국까지 진출 영역을 넓히며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나아가고 있다.

HK inno.N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케이캡정의 미국 내 1상 임상시험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HK inno.N은 건강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케이캡정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약력학 평가를 진행한다.

케이캡정은 P-CAB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지난 2019년 국내에 출시됐다.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제제 대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전, 식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우수한 약효 지속력으로 야간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점 등이 장점이다. /이세경 기자

CJ푸드빌

무더위 이길 '별미 3종'

CJ푸드빌이 운영하는 국수 전문점 제일제면소가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여름나기 별미 3종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더위를 극복하는 온전한 그릇'이라는 콘셉트로 선보이는 신 메뉴 세 가지다. 먼저 '제일 물냉면'은 동치미로 감칠맛을 살린 살얼음 동동 띄운 육수와 쫄깃한 메밀 생면이 만났다. 새콤달콤한 특제 양념장에 숙성 시



제일제면소 비빔냉면 /원은수 수습기자 silverbeauty@

GC녹십자MS 날개 단 진단키트, 3000만弗 수출

(코로나19)

GC녹십자엠에스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 등지에 총 3000만 달러(약 363억 원)에 대한 진단키트 수출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진단키트 부문 연간 매출액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받은 지 한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GC녹십자엠에스는 현재까지 항체 진단키트 2종과 분자진단키트 1종에 대한 허가를 마쳤다. 지난 16일 공시한 1725만 달러(약 209억 원)를 포함, 이제까지 총 3000만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서(LOA)와 수출공급계약(SA)을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싱가포르, 영국, 브라질 등 전세계 20여개국을 대상으로 진단키트를 수출한다. 회사 측은 계약에 따른 첫 선적은 이달 내 개시하

고, 추가적인 주문도 논의되고 있어 하반기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출하는 진단키트 '제네디아' 시리즈는 항체진단키트와 분자진단키트를 확보해, 병용 시 검사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의료 인프라가 갖춰진 선진국부터 의료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개발도상국까지 다양한 의료환경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GC녹십자엠에스는 다음달 POCT 분자진단키트 1종에 대한 추가수출 허가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4종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구축하고, 분자진단과 항체진단 양 축으로 수출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